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적응 측정도구 개발연구

현 경 자
(우리사회복지연구소)

김 연 수*
(백석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적응 수준을 측정하는 도구 개발을 진행하였다. 측정도구 제작을 위해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실태 및 적응과 관련한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이들의 한국생활적응과 관련한 주요 영역별로 측정 문항들이 개발되었다. 이 문항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를 수행하는 전국의 36개 기관을 이용하는 여성결혼이민자 558명에 대한 조사연구에 포함되어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이 자료를 이용하여 척도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제작된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적응 척도는 총 23개 문항, 5개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척도의 신뢰도는 .89로 양호하였다. 척도를 구성하는 요인은 1요인 '가족 및 한국 문화이해', 2요인 '지역사회이용 및 이해', 3요인 '한국어 이해 및 사용', 4요인 '대인관계 및 사회활동참여', 5요인 '한국음식적응'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요인들은 56.87%의 설명력을 보였다. 제작된 측정도구를 통해 산출된 한국생활적응 및 하위영역들의 값은 예측대로 연구대상자의 연령, 교육수준, 거주기간에 따라 차이를 보여 척도의 변별력이 양호함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기준관련 변인들과의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 결과는 동시타당도, 예측타당도 및 증분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함의 및 한계점을 논의하였으며, 개발된 척도는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적응 수준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활용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주요용어: 여성결혼이민자, 한국생활적응, 한국생활적응척도, 척도개발

본 연구에 이용된 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6/2007 테마기획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 참여한 기관들의 협조로 수집되었다. 이 사업을 지원해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자료수집에 도움을 준 사회복지관련 기관들 및 여성결혼이민자분들께 감사드린다.

* 교신저자: 김연수, 백석대학교(yskim@bu.ac.kr)

■ 투고일: 2011.10.31 ■ 수정일: 2011.12.6 ■ 게재확정일: 2011.12.12

I. 서론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한국인 남성과 중국, 베트남 등 외국출신 여성과의 결혼이 급증하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와 이들의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각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전체 혼인건수 중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 통계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9년 전체 혼인 중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은 10.8%(33,300건)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1990년에 국제결혼의 비율이 전체 결혼의 1.2% 정도였던 것과 비교 할 때 약 10배가량 증가한 수치로서 다문화가족은 현재 우리 사회의 새로운 가족의 한 유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는 다문화가족의 주축이 되는 가족구성원으로서 가족 내에서 배우자로서, 어머니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은 결혼과 함께 모국을 떠나 한국이라는 새로운 사회에 정착하게 된 이민자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고 자국에서의 고유한 문화적 경험을 갖고 있는 다문화인으로서 그러한 자신의 문화적 배경을 유지하면서 한편으로 이주국인 한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생활능력과 언어 및 문화적 역량을 키워야 하는 과제에 직면한다. 이들은 모국과 생활환경과 문화가 다른 한국에서 일상생활과 관련된 삶의 여러 측면들에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데, 대개 한국의 언어, 음식, 가부장적인 가족문화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며, 가족 및 이웃들과 새로운 대인관계를 형성하는데도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강유진, 1999; 윤형숙, 2004; 홍달아기·채옥희, 2006; 김이선 외, 2006).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경험하는 이 같은 적응상의 어려움들은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안정적인 가족체계로 정착하는데 도전이 되는 요인으로서, 심각할 경우 다문화가족내의 갈등과 사회적 부적응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고, 2006년부터 여성가족부의 지원으로 개소하기 시작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전국의 각 시·도로 확대 및 증설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적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내의 다양한 복지기관 및 민간단체들에서도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적응을 돕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현재 관 주도 하에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경우 그 동안의

시행착오를 통해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일방적으로 한국화하려는 동화주의 성향이 완화되고 성인지적이며 문화양립적인 측면이 보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이혜경, 2009). 또한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주요 프로그램들은 이들의 바램을 반영하여 한국생활적응과 자립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어교육, 개별상담, 사회적응훈련, 요리교육, 멘토링 등의 생활적응 프로그램에서 부터 취업능력 개발을 위한 자립지원서비스, 그리고 자녀양육 및 부모역할 교육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공되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단신으로 국내에 이주하여 한국인 배우자와 가족의 삶에 편입되므로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의 삶과 생활 속에서 적응해야 하는 도전적인 과제를 안게 된다. 윤희미(2009: 86)가 지적했듯이 “현재 한국사회 다문화가족의 양상은 국제이주가 지니고 있는 공통적 어려움 외에도 가족구성원 중 특정한 한사람에게 적응의 부담이 편중된다는 점에서 독특하며”,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적응과 관련된 경험은 가족단위로 국제이주가 이루어지는 서구의 이민국가에서 이민자 집단이 경험하는 적응현상과 차별화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이들의 일상생활의 영위를 순조롭게 하는 생활적응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생활적응을 지원해주기 위한 많은 사회적 지원책들이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지만 한국생활적응을 개념화하거나 이에 포함되는 영역들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전반적으로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상대적으로 어떤 영역에서 취약하거나 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또는 출신국에 따라 한국생활적응이 어떻게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기초자료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다양한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생활적응 수준은 어떠한지, 한국어 및 한국문화이해, 지역사회활동 참여 및 대인관계형성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적응수준은 어떠한지 등에 대한 파악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성들이 일정 기간을 두고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함에 따라 한국생활적응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거나 향상하는지 등에 대한 연구 자료나 근거 자료가 없어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적응의 현주소를 이해하고 앞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사업의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한계점이 야기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적응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하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측정도구개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적응이란 삶의 다양한 영역과 관련된 개인적, 가족적, 지역사회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영역들을 한국생활적응의 측면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개념적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실태와 적응을 주제로 한 보고서와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출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보건복지부, 2005;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7;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200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등), 이들의 한국생활적응의 개념을 구조화하거나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는 연구는 시도되지 못하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과 관련된 적응을 다룬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들이 경험하는 가족생활의 어려움과 갈등(이금연, 2003; 윤형숙, 2004; 이해경, 2005; 김민정의, 2006; 홍달아기·채옥희, 2006; 한건수 2006), 가족 및 지역사회 내에서 정착해 가는 질적인 과정(구차순, 2007), 문화적응 스트레스(권복순, 2009) 및 정신건강(정기선·한지은, 2009), 지역사회적응 관련 요인(임석희, 2009)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적응을 한국의 사회문화적 환경체계 내에서 일상생활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는데 필요한 지식습득과 능력을 반영하는 측정 가능한 개념으로 구체화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의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인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적응에 주안점을 두고, 일상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적응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개발을 시도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적응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서 여성결혼이민자가 주어진 환경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나가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므로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는 것은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사회과학적 연구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테마기획 사업으로 진행되었던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기여도와 성과평가를 위해 본 연구자들이 개발한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적응과 관련된 측정 항목들을 이용하여(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9) 이들이 보다 체계적인 측정도구로 이용가능한지를 알아보기 위한 두 가지 작업을 수행하였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적응과 관련된 측정항목 자료

전체를 대상으로 이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의 구성 및 설명력을 알아 보았다. 둘째, 요인분석 결과에 대한 일련의 신뢰도 및 타당도 평가 작업을 수행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적응을 측정할 수 있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지닌 척도로 분석 결과를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첫째, 현재까지 구체화되지 못했던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적응에 대한 개념과 이를 구성하는 하위 영역들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지식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지역사회 내 적응 수준을 파악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신규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적응 수준을 평가하여 이들에게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사정 하는데 유용한 도구개발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셋째, 이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지원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다문화가족 관련 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방향성을 재정립 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측정도구의 개발 차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보았다.

II. 문헌연구

1. 이민과 적응

인간은 환경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며 환경 속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기를 지향하는 존재이다. 인간과 환경의 관계는 여러 학문분야에서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적응이란 환경적 요구에 반응하여 일어나는 변화를 일컫는 개념”(Berry, 1997: 13)으로서,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환경에는 생태학적 체계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대인 관계, 제도 등 광범위한 체계가 모두 포함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적응은 주어진 환경에 자신을 맞추는 동시에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환경을 변화시키는 과정까지 포함하며, 개체가 환경과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켜나가는 지속적인 과정으로 당면한 사회적 과제를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해결하는 상태”(김민정·신성만, 2010: 712)로 정의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민자는 자신이 속해있던 사회를 떠나 새로운 사회에 편입하게 되는 집단이므로 심리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측면에서 다시 적응을 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며”(정진경·양계민, 2004: 107), 새로운 환경이 요구하는 삶의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변화된 환경에 자신을 맞추어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이민자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에게 친숙했던 언어, 음식, 사회적 가치나 관습, 제도, 주변 사람들과 맺었던 대인관계, 그리고 익숙했던 지역사회 내의 공간들을 떠나 정착지의 새로운 언어와 음식, 가치와 관습 등을 익혀야 하며, 이웃 등 주변 사람들과 새로운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일상생활 영위에 필요한 지역사회 내의 편의시설과 같은 공간에도 익숙해져야 하는 일상의 과제에 직면한다. 이민자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적응 상의 과제는 하나의 문화권에서의 생활양식을 몸에 익힌 개인이 다른 문화권에서의 생활양식을 배우고 이에 따른 적응을 이루어야하는 것이므로 기존 연구에서는 문화적응(acculturation)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이를 설명해왔다. “문화적응이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개인이나 집단들이 지속적으로 직접적인 접촉을 할 때 한 쪽 또는 두 집단 모두의 고유한 문화적 양상에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Redfield et al., 1936: 149)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개인차원에서는 행동, 가치, 태도 측면에 변화를 야기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즉, 문화적응이란 ‘문화’와 ‘적응’의 개념이 합해진 것으로 이민자가 지니게 되는 모국문화와 정착국의 문화사이의 새로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과정적 특성이 반영된 개념이며 두 문화를 동시에 고려하고 각각의 문화에 대한 개인의 소속감, 평가 등이 드러나는 문화정체성과 밀접하게 연관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적응이란 개인이 그가 현재 속한 사회 및 문화와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어가는 상태에 초점을 둔 개념으로 이민자의 경우 새로운 사회문화 환경에 대한 이해와 이에 따른 적절한 행동 및 기술의 습득이 요구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이민자의 적응과 관련하여 적응의 개념을 심리적 적응과 사회문화적 적응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기도 하였는데, 심리적 적응은 명료한 자기정체성과 문화정체성, 좋은 정신건강, 그리고 새로운 문화 환경에서의 개인적 만족감의 성취를 의미하며, 사회문화적 적응은 새로운 환경, 특히 가족생활과 일, 학교 등의 영역에서 일상의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Searle & Ward, 1990; Berry, 1997: 14 재인용)으로 정의되고 있다.

즉, “사회적 의미로서 적응은 한 개인이 사회의 다양한 상황이나 조건과 잘 어울리는 상태 및 과정을 의미하며, 개인의 내적, 심리적 욕구와 외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일상생활에서 만족을 느끼는 상태”(이재민·황선영, 2008; 임석희, 2009:

366-367 재인용)를 지칭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처럼 이민자의 적응에 대한 개념들은 새로운 사회에서의 일상생활을 건강하게 잘 유지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의 삶에 부합하는 지식과 사회적 기술을 익히는 것이 필요함을 전제한다.

본 연구에서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이민자의 적응을 여성결혼이민자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의미를 지니는 ‘생활적응’으로 개념화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생활적응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범주 내에서 여성결혼이민자가 새로운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그 속에서 독립적인 주체로서 살아가기 위해 요구되는 역량을 키우거나 자신의 역량과 성향을 조절하여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 나가는 과정을 뜻하며, 그에 따르는 변화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이민자의 적응과 관련된 문화적응의 개념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개인의 문화정체성(cultural identity), 즉 모국문화에 대한 소속감이나 주류사회 문화에 대한 소속감 등의 영향을 받아 촉진되거나 지체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은 이민자들 사이에서도 이주국에서의 일상생활을 영위해나가는 생활적응은 비교적 독립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측면이 많아 일상생활에 기반을 둔 적응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념화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생활적응은 이민자가 이주국에서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문화적 지식, 언어적 역량, 생활기술, 대인관계, 지역사회 이해 및 활용능력이 함양되는 것을 통해 성취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생활적응의 개념은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진 문화적응의 개념과 다소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만 문화적응의 개념이 문화적 정체성을 포함하는 개인의 인지, 행동 및 태도적 변화를 다루는 측면이 있는 반면, 생활적응의 개념은 일상생활 유지와 관련된 지식 및 기술습득과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 및 특정 장소나 기관에 대한 활용능력 등이 포함되는 보다 구체화된 사회기술의 습득이 중시되는 개념으로 차별화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적응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신뢰성과 타당성을 갖춘 도구의 개발을 위해 생활적응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영역들을 아래와 같이 살펴보았다.

2.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적응 관련 영역들

이민자와 같이 익숙한 문화권을 떠나 새로운 문화권에서 생활해야하는 개인들은 일

상생활과 관련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적응을 이루어나가야 한다. 새로운 사회에서 일상생활을 꾸려나가기 위해 이민자들은 먼저 언어, 음식, 사회적 가치나 관습 등을 익혀야하며,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사회에 대해 알고, 필요한 편의시설 등을 이용할 줄 알아야 하는데 이러한 구체적인 영역들이 이민자의 일상생활 적응개념을 논할 때 고려되는 영역들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보고한 기존의 연구들이 어떤 영역들을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본다면 이들의 한국생활적응이 어떤 측면들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관한 개념을 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일상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다각적으로 살펴본 연구들이 어떤 영역들을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경험에 포함시키고 있는지에 관해 분석해 본 결과 다섯 가지 특징이 파악되었다.

첫째, ‘한국어 능력’이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적응의 중요한 영역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일반적으로 이민자들은 새로운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정착국의 언어를 배우고 익혀야하는 적응 상의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언어상의 차이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경험하는 기본적인 문화적 충격으로서 이들은 결혼과 동시에 문자, 어휘 등이 전적으로 다른 또 하나의 세계에 직면하게 되며”(박은미·이근수, 2009: 412), 언어적 차이를 얼마나 잘 극복하고 한국어에 익숙해지는지가 한국생활적응의 중요한 단면이 된다.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과 관련된 대표적인 실태조사연구들을 살펴보면 이들의 한국어 구사능력을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4영역으로 나누어 조사하거나 가족생활과 관련하여 부부간의 의사소통과 언어문제가 있는지를 질문하는 항목들이 조사에 포함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05: 109). 또한 한국어에 대한 인지능력을 ‘거의 이해하지 못 함’~‘거의 모든 상황에서 불편함 없이 말할 수 있는 정도’까지로 측정한 연구도 있다(경기도여성정책개발원, 2007: 217-219). 가장 최근에 실시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로서 전수조사를 시도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 160-175)의 조사에서도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은 말하기, 읽기, 쓰기의 항목으로 구체화되어 5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이는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 구사능력이 한국생활적응과 관련된 필수적 개념요인이 됨을 반영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둘째, 여성결혼이민자가 모국과는 다른 한국의 음식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가 일상생활적응과 관련된 중요한 측면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식생활은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구성하는 요인으로서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접하는 삶의 중요한 측면이 된다. 그러나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모국과는 전혀 다른 한국의 음식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데,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에서의 일상생활 가운데 처음에 가장 적응하기 힘든 부분이 음식에 관한 것으로서 된장찌개, 고추장 등은 처음에는 냄새조차 맡기 힘들며, 반찬 종류가 많은 한국의 음식에 적응하는 것이 힘든 것”(김이선 외, 2006: 68-69)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오래 생활할수록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 음식에 적응하게 되는데, “한국가족의 경우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생활에 잘 적응되었다고 판단하는 하나의 상징적 행동기준이 바로 한국 음식을 얼마나 잘 먹는 지인 것”(한건수, 2006: 234)으로 제시된 바 있다.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의 식문화를 이해하고, 그에 따라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이 향상되는 것은 외국인 아내를 둔 남편과 시댁가족들 모두가 결혼생활에서 중시하는 측면이 된다. 이는 일상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영역으로서 식생활과 음식문화에 대한 적응이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적응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됨을 알 수 있게 한다.

셋째, 한국식 생활방식 및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적응의 중요한 구성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한건수(p.235)의 연구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한국식 사고방식이나 생활습관을 발견할 때 자신이 적응해가고 있다고 느끼며, 한국식 가족주의나 공동체적 가치를 편안하게 받아들일게 되는 것을 적응의 잣대로 스스로 생각하는 경향이 발견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pp.106-107)의 조사에서는 가족가치관에 대한 영역을 포함시켜 노부모 부양에 대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의견을 조사하기도 하였으며, 한국의 전통적 가치관으로서 가족주의 가치관에 대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생각을 조사하여 남편 및 시부모와의 차이를 비교한 연구도 진행되었다(경기도여성정책개발원, pp.124-126). 이는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의 가치와 전통 등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가 적응의 중요한 측면이 됨을 유추해볼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된다.

넷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적응과 관련하여 이웃 및 친구 등 주변 사람들과 맺는 대인관계와 사회적 활동 참여 여부도 한국생활적응의 중요한 측면으로 간주되고 있다. 보건복지부(pp.148-149)의 조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실태를 파악하는 한 측면으로 친구 및 이웃관계에 대한 영역이 하나의 중요한 카테고리로 포함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본국인, 한국인, 제 3국인 친구 등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의 수와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나 모임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연구에 포함되었다. 또한 이웃과의 관계에

서 이웃의 경조사에 참여하는지, 돈이나 생활용품 등을 빌리는지, 아이를 맡기는 등의 부탁을 하는지와 같은 이웃과의 자연스러운 사회적 관계 형성에 대한 질문과 사고 및 친목모임, 종교단체 모임, 결혼이민자 모임 등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나 모임이 있는지 등이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활동과 관련된 적응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으로 포함되어 있다(보건복지부, pp.151-152). 경기도여성정책개발원(pp.223-225)의 조사에서도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에 대한 적응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친구관계 및 이웃관계 등과 같은 개인적인 연결망과 단체나 모임활동 참여와 같은 지역사회 교류 정도를 알아보는 항목들이 조사의 중요한 측면으로 포함되었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pp.465-499)의 조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모국인, 한국인, 제 3국인 등과 여가생활을 함께 하며 교류하는지와 가족이나 친척모임, 모국인모임, 학부모 모임, 지역주민모임 등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는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이라는 새로운 지역사회의 생활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기준으로서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만나는지, 모임이나 단체 등의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요인이 됨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다섯째,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적응과 관련하여 일상생활 영위에 필요한 지역사회내의 다양한 편의시설 및 공간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적응과 관련하여 “남편 또는 시부모와의 관계, 자녀양육 등과 같은 한정된 공간인 가정 내에서의 적응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보다 확대된 공간 스케일인 지역사회 내에서의 적응에 대한 중요성”(임석희, 2009: 365)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지역사회이용과 관련하여 경기도여성정책개발원(pp.264-266)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가 종교단체, 결혼이민자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사회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 등과 같은 지역사회내의 각종 기관들을 이용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내 적응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바 있다. 이민자의 경우 익숙했던 모국의 지역사회 내 공간을 떠나 새로운 사회에 적응해야 하므로 새로운 지역사회 내에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간 및 편의시설들에 익숙해지거나 이에 대한 이용법을 익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생활적응의 한 단면이 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적응을 개념화하는 것과 관련된 구체적 하위요인에는 언어, 음식, 생활방식 및 문화이해, 대인관계 및 사회적 활동,

지역사회 이용 등과 같은 측면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여성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전국적 또는 시·도 단위의 실태조사연구 등에서 적응과 관련하여 중요한 영역으로 다루어진 내용들로서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적응 개념을 구성하는 중요한 하위영역들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이 가운데 언어, 음식, 대인관계 및 사회적 활동과 관련된 영역들은 서구 사회의 이민자집단을 대상으로 이들이 정착지에서의 생활과 문화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를 측정한 문화적응 척도의 주요 개념구성영역으로도 사용된 것이다(Marin et al., 1987; Suinn-Lew et al., 1992; Cuellar et al., 1995; Stephenson, 2000; Barry, 2001; Unger et al., 2002). 예를 들면, 아시아계 미국인자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적응 척도(Suinn-Lew et al., 1992)에서는 언어/영화/음악에 대한 선호, 전통유지, 문화적 정체성, 음식에 대한 선호 및 대인관계를 주요 측정 영역으로 하였고, 미국 내 여러 이민자집단의 문화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다집단 문화적응척도(Stephenson, 2000)에서는 문화적응을 측정하는 영역으로 언어, 사회적 상호작용, 음식, 그리고 대중매체와 관련된 태도를 포함시켰다. 이와 같은 문화적응 척도들은 측정에 있어 민족문화와 주류문화를 구분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적응을 개념화함에 있어 언어, 음식, 대인관계 및 사회적 활동 등을 중요한 영역으로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이러한 영역들이 일상생활 적응의 중요한 영역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영역들은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적응을 측정하는 도구의 주요 개념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그 동안의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적응이 구체적으로 개념화되지 못하였고, 생활적응에 중요한 영역들도 개별적으로 각 연구마다 다소 상이하게 측정되어 왔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생활에서 한국생활적응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삶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력을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측정도구가 부재하여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개발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기존의 연구동향에서 발견되는 간극을 메우고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적응에 대한 사정 및 그러한 적응을 돕는 개입의 성과평가 도구로 유용하리라 예상되는 생활적응 측정도구의 개발을 아래와 같이 시도하였다.

Ⅲ.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방법 및 결과

1. 조사대상 및 표집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국제결혼을 통해 국내로 이주한 다문화가정의 여성결혼이민자이다. 이 연구를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2006, 2007 테마기획 사업인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성과 및 기여도 조사에 참여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응답 자료가 이용되었다. 조사에 참여한 기관은 총 36개로 2008년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한 전국 각 시도의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들이다. 조사참여자는 비확률 할당표집과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방법으로 선정되었다. 수행기관 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20명의 조사가 할당되었고, 조사참여자의 선정에는 기관에 등록된 여성결혼이민자의 국적별 분포가 고려되어 기관 당 할당된 20명의 여성결혼이민자의 국적이 그러한 국적별 분포비율과 일관되게 하는 할당표집이 이용되었다. 자료수집은 조사에 대한 안내와 지침을 제공받은 수행기관의 실무자가 진행하였고, 조사기간은 2008년 7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였다. 설문조사에는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몽골어, 영어, 태국어의 6개 국어로 번안된 설문지가 사용되었고, 모국어 설문지가 없는 경우 한국어로 읽고, 쓰기가 가능한 자들에 한해 한국어 설문지가 사용되었다. 이 조사로 회수된 설문지는 573부였으며, 미완성 등 분석에 문제가 있는 설문지를 제외한 후 최종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총 558부였다.

2. 척도개발과정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적응 측정도구의 개발에 고려된 항목들은 한국의 지역사회에서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필요한 실제적인 삶의 영역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항목들은 여성결혼이민자와 관련한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 및 보고서(예: 보건복지부, 2005; 김이선 외, 2006)와 연구논문들(예: 한건수, 2006)에서 다루어진 개인, 가족, 지역사회 차원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과 관련된 주요 내용들을 토대로 개발되었으며, 문항제작 시 고려된 세 가지 측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에서의 일상생활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

이 무엇인지를 영역별로 나누어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이 개발되었다. 여기에는 문헌연구를 통해 도출된 언어소통능력, 생활방식 및 문화 이해, 대인관계의 질과 폭, 지역사회 교류 수준, 음식에 대한 적응 등이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 한국어의 이해 및 소통, 한국복식 문화 이해, 가족생활 문화 및 가족관계 이해, 자녀양육 및 사회문화 이해, 내외국인과의 교류, 지역기관 활용, 지역사회참여 및 사회활동, 한국음식 먹기 및 만들기 등이 한국생활적응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고려되었다.

둘째,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생활에서 느끼는 문화적 차이, 생활적응상의 어려움 등과 관련된 내용을 문헌조사를 통해 파악한 후 그러한 문화적 차이의 감소나 적응과 관련된 문제가 해소된 상태를 측정할 수 있도록 문항들이 제작되었다. 예를 들면, “나는 한국 속담이나 은어, 유머 등을 잘 이해한다”, “나는 한국 사람들과 잘 사귀다” 등의 항목이 포함되었다.

셋째, 측정과 관련된 각 영역별로 적응의 수준을 다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인지적, 행동적, 정서적 측면의 적응상태를 묘사하는 항목들이 제작되었다. 이는 이민자의 적응 과정은 행동, 가치 및 신념에 영향을 미치며, 문화적응은 행동적, 태도적, 심리적 변인들과 관련이 있다는 문헌에 이론적 근거를 둔 것이다(Miller, 2005: 2-4). 이에 따라 “나는 한국의 제사문화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나는 한국의 효문화, 노부모 부양문화에 대해 잘 알고 있다”와 같은 인지적 측면, “나는 의사소통 시 주로 한국말을 사용한다”, “나는 한국식으로 밥상을 차리는데 익숙하다” 등과 같은 행동적 측면, 그리고 “나는 이웃의 한국사람들과 어울릴 때 편안함을 느낀다”와 같은 정서적 측면을 묘사한 항목들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개발된 문항의 측정방식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응답자들은 설문지에 제시된 각각의 한국생활적응 관련 문항의 내용이 자신의 한국생활 경험이나 그에 대한 생각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생각해보고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점수를 평정하였다. 응답항목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측정항목에 대한 적응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도록 구성되었다.

이상의 방식에 따라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적응을 측정하는 항목들이 총 26개 제작되었다. 조사 실시 전 구성된 문항들이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적응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과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측정 문항들의 내용이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적절하며, 잘 이해가 되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전

답실무자들과 한국어 구사가 능통한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측정도구의 내용을 보내어 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들의 피드백을 받아 의미가 명확히 전달되지 않거나 표현이 모호한 문항들의 내용이 수정되었고, 최종 조사에는 수정문항들이 포함되었다.

3. 분석방법

측정도구 개발을 위해 SPSS 18.0으로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이 실시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에 사용된 방법은 변인들의 잠재적 차원과 구성을 알고자 할 때 적합한 공통요인모형(common factor model)으로 주축분해법(principle axis method)이 사용되었으며,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가정하는 사각회전방법을 사용하여 요인을 회전시켰다. 요인선정의 기준은 고유치(eigen value)가 1이상일 경우 하나의 요인으로 인정하였으며(Kaiser, 1974), 공통분(commonality)이 .30이상이며,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이 최소 .30이상인 경우(DeVellis, 1991) 요인을 구성하는 항목으로 선택하였다. 또한 하나의 요인 추출에 최소 3개 이상의 지표변수가 필요하다는 기준을 고려하였다(이순목, 2000). 척도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서는 내적합치도인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공통분이나 요인부하량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관련 항목의 개념적 타당성과 내적일치도의 기여 여부를 검토하여 최종 항목을 선정하였다.

4. 연구결과

가. 연구참여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연구참여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출신국가 거주지역 특성을 살펴보면, 출신국은 베트남이 전체의 41.4%(n=231)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21%(n=117), 필리핀이 15.1%(n=84), 일본이 6.6%(n=37)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들의 거주지역은 전국의 각 시도에 분포되어 있었는데,¹⁾ 이 중 대도시와 중소도

1) 이 중 서울 거주자가 19.2%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충남, 전북, 부산 등에 거주하는 자가 각각 10% 이상의 비율로 높게 나타났다.

시 거주자가 각각 35.7%(n=199)와 26.5%(n=148)로 도시에 거주하는 자의 비율이 총 62.2%로 높았고, 농어촌 및 산촌 거주자가 19.4%(n=108), 도농복합지역 거주자가 11.1%(n=62)로 나타났다. 조사참여자의 연령대는 20대가 58.5%(n=298)로 가장 많았으며, 30대가 28.9%(n=147), 그리고 40대 이상이 10.6%(n=54)로 조사되었고, 이들의 평균연령은 28.8세(SD=7.2세)였다. 결혼상태는 80%(n=435)가 넘는 대다수가 초혼이었으며, 재혼의 비율은 7.2%(n=39)로 낮았다. 이들의 평균 결혼기간은 45.4개월로 3년 9개월 정도였다. 조사참여 여성의 학력은 고교 중퇴 또는 졸업이 37%(n=198)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교 중퇴 또는 졸업이 23.9%(n=128), 그리고 전문대 또는 대학을 졸업하거나 중퇴한 자가 각각 15.3%(n=82)와 10%(n=56) 이상으로 나타나 이들의 학력수준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족 생활주기 상으로는 과반수 이상의 여성들이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으며, 아동기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자가 14.6%(n=78), 임신 중이거나 아직 자녀가 없는 자가 32.4%(n=173)로 나타났다. 가족의 월평균 수입은 100만원-200만원이 45.1%로 가장 많았으며, 100만원 미만도 10.4%가 포함되어 있어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구에 속한 자가 상당수임을 알 수 있었다.²⁾ 이 여성들의 한국거주기간은 평균 46.4개월로 3년 10개월 정도였으며, 이는 결혼기간 평균과 거의 동일하여 조사참여자들의 대부분이 결혼과 동시에 한국에 거주하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었다.

2) 다른 항목들에 비해 가족의 월수입에 응답하지 않은 무응답 사례가 월등히 많아 비율만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가족의 월수입을 실제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 조사참여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a

변수		N	%	변수		N	%	
출신 국적	베트남	231	41.4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41	7.6	
	중국	117	21.0		중학교 중퇴/졸업	128	23.9	
	필리핀	84	15.1		고등학교 중퇴/졸업	198	37.0	
	일본	37	6.6		전문대 중퇴/졸업	82	15.3	
	태국	28	5.0		대학교 중퇴/졸업	56	10.5	
	몽골	15	2.7		대학원 이상	15	2.8	
	기타	29	5.2		기타	15	2.8	
	총계	541	100		총계	535	100	
				교육연수: M=10.9년/SD=3.2년				
거주 지역 특성	대도시	199	35.7	가족 생활 주기	아이 없음/임신중	173	32.4	
	중/소도시	148	26.5		영아기(만2세 이하)	130	24.3	
	농/어/산촌	108	19.4		유아기(만3~6세)	141	26.4	
	도/농 복합지역	62	11.1		아동기 이상	78	14.6	
	기타	7	1.3		기타	13	2.4	
	총계	524	100		총계	535	100	
연령	10대	10	2.0	가족 월수 입	100만원 미만	31	10.4	
	20대	298	58.5		100~200만원 미만	134	45.1	
	30대	147	28.9		200~300만원 미만	83	27.9	
	40대 이상	54	10.6		300만원 이상	64	16.5	
	총계	509	100		총계	312	100	
연령: M=28.8세/SD=7.2세				월수입 M=170만원/SD=200만원				
결혼 상태	초혼	435	80.6	한국 거주 기간	1년 이하	94	18.8	
	재혼	39	7.2		1년 초과~2년 이하	91	18.2	
	동거	58	10.7		2년 초과~3년 이하	94	18.8	
	별거	4	0.7		3년 초과~4년 이하	57	11.4	
	이혼	3	0.6		4년 초과	163	32.7	
	기타	1	0.2		총계	499	100	
	총계	540	100		거주기간: M=46.4/SD=42.9(개월)			
	결혼기간: M=45.4/SD=43.1(개월)							

표에는 결측치를 제외한 수치와 비율을 제시하여 표본수가 각기 다름.^a

이러한 연구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수조사를 시도한 2009년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특성과 연령대, 교육수준, 거주지역 등에서 유사하다. 이 두 연구에서 조사참여 여성들의 연령대는 20대 이하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교육수준 또한 중학교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자의 비율이 전문대나 대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자에 비해 훨씬 높으며, 거주지역도 도시지역 거주자의 비율이 과반수를 훨씬 초과하여 농어촌 지역 거주자의 비율에 비해 약 2.5~3배 사이에 달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발견된다. 이는 본 연구의 표본이 편의표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에 비교적 부합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고무적이다.

나.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도구 개발을 위해 실시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5개 요인이 추출되었고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KMO값이 .88로 나타났고, Bartlett's test 결과도 유의미하게($p < .001$) 산출되어 분석된 자료가 요인분석에 합당함을 알 수 있었다. 분석방법에 언급된 척도항목의 선정 원칙에 따라 총 23개 항목이 이 5개 요인에 최종 포함되었다. 각 요인의 특성과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 1요인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에서의 원만한 가족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 알고 있어야 하는 문화이해와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의 명절, 제사, 의복, 효, 노부모 부양, 웃어른 공경 및 자녀교육 등의 문화를 잘 알고 있는지와 관련된 문항들이 1요인에 부하되었다. 1요인에는 6개 항목이 .40이상의 부하량을 보이며 적재되었고, 항목 13, “나는 명절이나 제사 때 시댁식구들과 함께 모여서 시간을 보내는 것에 익숙하다”는 부하량이 .31로 적절하게 나타났으나 요인 4와 5에 부하된량과 큰 차이가 없었고 공통분이 .23으로 낮아 최종 항목선정에서 제외되었다.³⁾ 이에 1요인은 부하된 문항들의 특징을 반영하여 ‘가족 및 한국문화이해’로 명명되었고, 신뢰도 계수는 .82로 우수하게 나타났다.

3) 가족 및 한국문화이해와 관련된 다른 문항들이 모두 인지적 측면을 측정하도록 구성되는데 비해 이 문항은 ‘익숙함’이라고 하는 심리적 측면과 행동적 측면이 동시에 포함되는 의미를 지녀 타 요인들과도 연관성을 보이며 요인부하량이 낮게 적재된 것으로 해석된다.

제 2요인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독립적으로 지역사회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이 요인에는 동사무소나 은행 등에서 일을 혼자 처리하고 시장이나 마트 등과 같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장소들을 잘 이용하며, 현재 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뉴스 등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를 질문하는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요인 2에는 3개 문항이 .30이상의 부하량을 보이며 적재되었고, 신뢰도 계수는 .70으로 나타났다. 이에 요인 2는 ‘지역사회이용 및 이해’로 명명되었다.

제 3요인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이해 및 소통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예를 들면, 의사소통 시 주로 한국말을 사용하는지, 한국어로 나오는 TV나 영화를 이해하면서 보는지, 그리고 한국 속담이나 은어, 유머 등을 이해할 수 있는지 등과 같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구사 능력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문항들이 이에 부하되었다. 요인 3에는 7개 항목이 .30이상의 부하량을 보이며 적재되었다. 이 중 항목 1, “나는 인터넷에서 필요한 정보를 한국어로 찾는다”는 부하량이 .48로 우수하였으나 공통분이 .23으로 낮았으며 신뢰도에 기여하는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항목 5, “나는 웃어른에게 한국말로 이야기할 때 존댓말을 사용한다”는 요인 1과 중복 부하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하량에 큰 차이가 없어⁴⁾ 최종 항목 선정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5개 항목으로 구성된 요인 3은 ‘한국어 이해 및 사용’으로 명명되었고, 신뢰도 계수는 .76 이었다.

제 4요인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지역사회 내 사회활동 참여 정도와 대인관계를 평가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여기에는 한국인이나 모국인 또는 다른 나라 출신의 이민자와 대인관계를 맺으며 교류하는 정도, 그리고 이웃의 경조사나 반상회 등에 참여하거나 친목모임 또는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는지 등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요인 4에는 6개 항목이 .30이상의 부하량을 보였으며, 이들의 신뢰도 계수는 .75로 나타났다. 요인 4는 ‘대인관계 및 사회활동참여’로 명명되었다.

4) 이 문항은 서로 다른 2가지 측면의 내용, 즉 ‘한국어 구사능력’과 ‘문화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함께 포함되어 서로 다른 요인에 중복 부하되며 낮은 부하량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2. 한국생활적응 측정도구 항목들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나는...	문항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공통분	
25.	명절이나 결혼식 등 특별한 날에 한국사람들이 입는 옷차림에 대해 잘 알고 있다.	.76					.45	
26.	한국의 효문화, 노부모 부양문화에 대해 잘 알고 있다.	.67					.45	
24.	한국의 제사문화에 대해 잘 알고 있다.	.64					.44	
23.	한국의 자녀양육/교육문화에 대해 잘 알고 있다.	.58					.43	
12.	한국식으로 시부모나 집안 웃어른들을 공경하는 법에 대해 잘 알고 있다.	.54					.50	
11.	시댁식구들의 호칭을 대부분 알고 있다.	.45					.40	
13.	나는 명절이나 제사 때 시댁식구들과 함께 모여서 시간을 보내는 것에 익숙하다.	.31			.24	.25	.23	
22.	동사무소나 은행 등에서의 불 일을 혼자서 처리한다.		.70				.54	
21.	시장이나 가게, 슈퍼, 마트, 백화점 등에서의 불 일을 혼자서 처리한다.		.57				.43	
20.	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뉴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34				.41	
3.	한국어로 나오는 TV나 영화를 이해하면서 본다.			.67			.45	
4.	한국어 신문의 내용을 이해한다.			.64			.48	
6.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편안하다.			.60			.47	
2.	의사소통 시 주로 한국말을 사용한다.			.56			.33	
7.	한국속담이나 은어, 유행 등을 잘 이해한다.			.49			.42	
1.	나는 인터넷에서 필요한 정보를 한국어로 찾는다.			.48			.23	
5.	나는 웃어른에게 한국말로 이야기할 때 존댓말을 사용한다.	.26		.31			.34	
16.	한국친구들을 포함하여 여러 나라 출신 이민자 친구들과 자주 만난다.				.84		.45	
14.	한국친구와 모국/다른 나라 출신 이민자 친구가 있다.				.62		.37	
17.	한국 사람들과 잘 사귄다.				.52		.42	
18.	이웃의 결혼식이나 장례식, 생일이나 회갑잔치, 반상회 등의 모임에 항상 참여한다.				.37		.41	
15.	이웃의 한국 사람들과 어울릴 때 편안함을 느낀다.				.34		.37	
19.	친목모임(자조모임)이나 자원봉사활동 등 사회활동을 활발히 한다.				.33		.32	
10.	한국식으로 밥상을 차리는데 익숙하다.					.73	.37	
8.	한국 음식을 잘 만들 수 있다.					.58	.42	
9.	한국 음식 먹는 것을 좋아한다.					.47	.25	
고유값(eigenvalues)		7.29	2.17	1.88	1.53	1.16	-	
신뢰도 계수(α)		.82	.70	.76	.75	.67	-	
26문항의 설명력(총 53.91%)		28.14	8.33	7.21	5.89	4.44	-	
최종 23문항의 설명력(총 56.87%)		29.1	8.68	7.57	6.68	4.83	-	
전체 척도(23문항) 신뢰도 계수(α)							.89	
KMO							.88	
Bartlett's test 유의도							.000	

마지막으로 제 5요인은 한국의 음식문화 이해와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었는데, 한국음식을 잘 만들 수 있는지, 한국식으로 밥상을 차리는데 익숙한지 등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들이 이에 포함되었다. 요인 5는 3개 항목이 .30 이상의 부하량을 보였으며,⁵⁾ 이들의 신뢰도 계수는 .67로 나타났다. 요인 5는 ‘한국음식 적응’으로 명명되었다.

이와 같이 전체 23문항, 총 5개 요인으로 구성된 척도의 ‘한국생활적응’에 대한 총 설명량은 56.87%로 꽤 높게 나타났다. 이 가운데 요인 1 ‘가족 및 한국문화이해’ 요인의 설명량이 29.1%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지역사회이용 및 이해’ 8.68%, ‘한국어 이해 및 소통’ 7.57%, ‘대인관계 및 사회활동참여’ 6.68%, ‘한국음식적응’이 4.83%의 설명량을 추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⁶⁾ 도구의 전체 신뢰도는 .89로 우수하였으며, 각 하위요인들의 신뢰도도 5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들은 모두 .70이상으로 적절하거나 양호하게 나타났다.

한국생활적응 구성요인들의 요인상관지수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06~.53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요인 간 상관지수가 가장 높은 영역은 요인 1 ‘가족 및 한국문화이해’와 요인 5 ‘한국음식적응’이었으며, 요인 2 ‘지역사회이용 및 이해’의 경우 다른 영역의 요인들과 상관관계가 -.06~.13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 이 요인이 다른 요인들과 관련되어 있는 정도가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요인 3 ‘한국어 이해 및 사용’과 요인 1 ‘가족 및 한국문화이해’의 상관지수는 .42, 요인 4 ‘대인관계 및 사회활동참여’와의 상관지수는 .32로 나타나 언어적 능력과 한국문화에 대한 인지정도 및 대인관계와 사회활동참여 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항목 9, “나는 한국음식 먹는 것을 좋아한다”는 공통분이 .25로 기준치인 .30에 다소 미달되었지만 신뢰도 계수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개념적으로 한국음식 적응의 지표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5요인에 포함되었다. 최종 선정된 23개 항목들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한 결과 이 항목에 대한 공통분이 .30으로 기준치에 부합하게 산출되어 최종 척도문항으로 선정하는데 무리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6) 이러한 결과는 26개 문항의 총설명량 53.91%에 비해 약3%가 상승된 것으로 각 하위영역별 설명량도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요인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항목선정이 적절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3. 한국생활적응 구성요인들의 요인상관지수

구분	1	2	3	4	5
1. 가족 및 한국문화이해	-				
2. 지역사회이용 및 이해	.09	-			
3. 한국어 이해 및 사용	.41	.12	-		
4. 대인관계 및 사회활동 참여	.42	.13	.31	-	
5. 한국음식적응	.53	-.06	.38	.42	-

이상과 같이 5요인으로 구성된 한국생활적응척도 점수 전체와 이를 구성하는 각 개념구성영역 점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본 결과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각 영역들 간의 상관계수가 .28~.53으로 모두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앞서 요인상관지수 분석에서 타요인들과 낮은 상관을 보인 2요인과 나머지 4개 요인들과의 상관계수 범위가 .28~.41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한국생활적응을 측정하는 개념구성영역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 한국생활적응척도와 개념구성영역들 간의 상관관계

구분	1	2	3	4	5	6
1. 한국생활적응(전체)	-					
2. 가족 및 한국문화이해	.81***	-				
3. 지역사회이용 및 이해	.62***	.35***	-			
4. 한국어 이해 및 사용	.74***	.49***	.39***	-		
5. 대인관계/사회활동 참여	.80***	.53***	.41***	.43***	-	
6. 한국음식적응	.70***	.53***	.28***	.44***	.47***	-
평균/표준편차	3.38/.54	3.56/.68	3.17/.86	3.23/.67	3.29/.70	3.60/.74

*** p<.001

다. 척도의 문항 및 신뢰도 분석 결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5개 요인을 주축으로 한 한국생활적응 척도의 문항 변별도와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문항들에 대한 문항분석과 문항-총점간 상관 및 추가적인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가 제시된 표 5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척도 문항들의 평균 범위는 5점 척도의 2.75~4.00 사이로 양 극단에 치우친 점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표준편차는 대부분 1에 근접하여 응답의 분포가 다양함을 추정할 수 있었으며, 소수 문항을 제외하고는 평균이 3.5점, 즉 '3점: 약간 그렇다'와 '4점: 그렇다'의 중간 지점에 근접하거나 그 이하로 나타나 문항의 변별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문항-총점 간 상관의 계수범위는 .35~.57 사이로 상관이 지나치게 큰 경우(.80 이상)와 지나치게 낮은 경우(.10 미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적절하게 판단되었다(엄명용·조성우, 2005).

한국생활적응 척도의 전체 및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 범위는 앞서 요인분석결과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5요인을 제외하고 .70~.89 수준으로 수용가능성에서 우수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5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67로 수용가능한 수준의 기준이 되는 .70 미만으로 나타났으나 구성문항 수(3개)가 적은 것이 신뢰도 산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DeVellis, 1991)과 문항-총점 간 상관계수의 범위가 .38~.53으로 우수한 점을 고려할 때 척도의 하위영역으로 포함시키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측정도구의 신뢰도 확인을 위하여 전체 표본에서 무작위로 300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신뢰도를 평가해본 결과, 7) 한국생활적응척도 전체는 .88, 가족 및 한국문화 이해 영역 .82, 지역사회 이용 및 이해 영역 .70, 한국어 이해 및 사용 영역 .77, 대인관계 및 사회활동 참여 영역 .78, 한국음식적응 영역 .67로 전체표본의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나 한국생활적응 척도의 신뢰도가 전반적으로 수용가능한 수준에 부합하거나 그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7) 무작위로 선택된 300명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평균 연령이 28.5세, 평균 한국거주기간이 3년 7개월, 결혼상태는 90%가 초혼, 학력수준은 고졸 및 고교중퇴가 35.3%으로 가장 많았다. 이 표본은 전체 표본에 비해 국내거주 기간이 평균적으로 다소(3.4개월) 낮았고 초혼의 비율이 약 10% 정도 더 높은 차이를 보였다.

표 5. 한국생활적응 척도의 문항변별도

요인	나는... 문항	문항-총점간 상관	평균	표준 편차
가족/한국 문화 이해 α=.82	1. 한국의 효문화, 노부모 부양문화에 대해 잘 알고 있다.	.57	3.51	.92
	2. 한국의 자녀양육/교육문화에 대해 잘 알고 있다.	.56	3.08	.95
	3. 한국의 제사문화에 대해 잘 알고 있다.	.53	3.08	1.00
	4. 명절이나 결혼식 등 특별한 날에 한국사람들이 입는 옷차림에 대해 잘 알고 있다.	.52	3.51	.95
	5. 시댁식구들의 호칭을 대부분 알고 있다.	.50	4.00	.74
	6. 한국식으로 시부모나 집안 웃어른들을 공경하는 법에 대해 잘 알고 있다.	.48	3.97	.79
지역 사회 이용/이해 α=.70	1. 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뉴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56	3.09	.93
	2. 시장이나 가게, 슈퍼, 마트, 백화점 등에서의 불 일을 혼자서 처리한다.	.38	3.59	1.07
	3. 동사무소나 은행 등에서의 불 일을 혼자서 처리한다.	.38	2.94	1.20
한국어 이해 및 사용 α=.76	1. 한국 속담이나 은어, 유머 등을 잘 이해한다.	.49	2.76	.89
	2. 한국어로 나오는 TV나 영화를 이해하면서 본다.	.49	3.55	.84
	3. 한국어 신문의 내용을 이해한다.	.49	2.75	.92
	4.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편안하다.	.46	3.30	.92
	5. 의사소통 시 주로 한국말을 사용한다.	.39	3.70	.92
대인 관계/사회 활동 참여 α=.75	1. 한국 사람들과 잘 사귀다.	.54	3.28	.96
	2. 이웃의 결혼식이나 장례식, 생일이나 회갑 잔치, 반상회 등의 모임에 항상 참여한다.	.50	2.79	1.11
	3. 한국친구들을 포함하여 여러 나라 출신 이민자 친구들과 자주 만난다.	.47	3.30	1.04
	4. 친목모임(자조모임)이나 자원봉사활동 등 사회활동을 활발히 한다.	.47	3.03	1.06
	5. 한국친구와 모국/다른 나라 출신 이민자 친구가 있다.	.40	3.80	.88
	6. 이웃의 한국 사람들과 어울릴 때 편안함을 느낀다.	.35	3.36	.98
음식 문화 적응 α=.67	1. 한국 음식을 잘 만들 수 있다.	.53	3.31	1.00
	2. 한국식으로 밥상을 차리는데 익숙하다.	.47	3.57	.91
	3. 한국 음식 먹는 것을 좋아한다.	.38	3.86	.84

IV. 한국생활적응 측정도구의 타당화

한국생활적응 척도의 타당도는 척도 구성요인의 변별력,⁸⁾ 척도와 기준변인들 간의 관련성에 의해 타당성을 평가하는 기준타당도(criterion validity) 그리고 제작된 척도의 유용성 및 관련변수들과 차별화되는 설명력을 살펴볼 수 있는 증분타당도(incremental validity)측면에서 알아보았다.

우선 한국생활적응척도 구성요인들의 변별력을 알아보기 위해 타문화로 이주한 자들의 적응에 기여하는 변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연령, 교육수준, 거주기간과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기존문헌을 보면 이주민의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이주국에서의 거주기간이 길수록 적응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영란, 2008; 임석희, 2009). 따라서 이러한 인구사회학적 변수들과 한국생활적응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지, 그리고 이 변수들이 한국생활적응 척도의 하위영역들을 설명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척도 구성요인들의 변별력을 확인하였다.

둘째, 한국생활적응 척도의 기준타당도 평가는 동시타당도와 예측타당도 측면에서 알아보았다. 한국생활적응이 높은 자일수록 현재 직업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한국어 구사능력이 뛰어날 것으로 기대되어 응답자의 직업유무 및 한국어 구사능력과 상관계 분석을 통해 동시타당도를 평가하였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 이민자들의 적응은 심리적 안녕감이나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Berry, 1997; Jayasuriya et al., 1992)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생활적응은 한국생활에서의 안녕감을 반영하는 지표로 볼 수 있는 삶의 만족도, 결혼만족도, 그리고 희망감 변인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⁹⁾

끝으로 증분타당도(incremental validity)는 척도에 의해 측정된 값이 독립변인으로 다른 변인들과 함께 투입되었을 때, 종속변인에 대한 추가적 변량을 유의미하게 독자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이다(Hunsley &

8) 이 연구에서 시도한 한국생활적응에 대한 개념화는 다양한 문헌고찰과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고 있고 생활적응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그와 같은 방식으로 개발된 기존척도가 부재하여 수렴타당도와 같은 구성타당도 평가는 고려되지 않았다. 대신 척도 구성요인들의 변별력 검증을 통해 구성개념의 타당성을 일정부분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9) 엄밀한 의미에서 예측타당도는 미래에 발생할 기준을 예측하는 것이므로 횡단적 자료로 그러한 평가를 시도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라 하겠다.

Meyer, 2003). 본 연구에서는 한국생활에서의 안녕감을 반영하는 지표로 볼 수 있는 삶의 만족도와 결혼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적 특성인 희망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을 독립변인으로 함께 포함시켜 이들의 효과를 통제된 후에 한국생활적응 점수가 추가적으로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이는지를 조사하였다.

1. 조사대상

한국생활적응 척도에 대한 타당도 검토에는 측정도구 개발에 사용된 전체 표본 558명의 자료가 이용되었다.

2. 측정

가.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Diener et al.(1985)이 개발하여 조명환과 차경호(1998)가 번안한 한국판 생활만족 척도로 측정되었다. 5개 문항으로 구성된 본 척도의 응답항목은 5점(‘1.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 매우 그렇다’)으로 되어 있고 척도점수는 전체항목에 대한 응답의 평균치가 사용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이 높음을 의미한다. 삶의 만족도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5로 우수하였다.

나.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는 Kansas 결혼만족척도(Schumm et al., 1986)에 포함된 세 문항 및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문항(정현숙, 1997)을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이 척도는 응답자가 결혼생활, 배우자, 배우자와의 관계, 그리고 부모역할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를 7점 척도(‘1. 전적으로 불만족’부터 ‘7. 전적으로 만족’)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척도점수는 전체항목에 대한 응답의 평균치가 사용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자녀가 없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경우 부모역할 만족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들에 대

한 응답의 평균치가 사용되었다. 결혼만족도의 신뢰도 계수는 .90으로 우수하였다.

다. 문화적응스트레스

문화적응상의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Sandhu와 Asrabadi(1994)가 개발한 ‘문화 적응 스트레스 척도(Acculturative Stress Scale)’가 이용되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7)의 연구에 사용된 번역본을 이용하여 국내 이주여성들에게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차별감, 향수병, 문화충격 영역에 해당하는 총 14문항이 측정되었다. 응답항목은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 매우 그렇다’)로 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측정항목에 대한 적응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7로 나타났다.

라. 희망감

결혼이민여성 응답자들의 희망감을 측정하기 위해 Snyder 외(1991)가 개발한 희망상태 척도(State Hope Scale)의 6문항이 사용되었다. 이 척도에는 ‘복잡한 상황에 처해 빠져나올 방법을 많이 생각할 수 있다,’ ‘현재 열정적으로 내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응답항목은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 매우 그렇다’)로 되어 전체 항목에 대한 평균치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희망상태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77 이었다.

마. 인구사회학적 특성

여성결혼이민자의 연령과 교육수준은 연속변수로 측정되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국내 거주기간은 1년 이하부터 4년 초과까지 5점 척도로 재코딩하여 사용되었다. 이 여성들이 느낀 경제적 어려움은 단일문항(“귀하의 결혼생활을 돌이켜 볼 때, 귀하는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움을 겪으셨습니까?”)으로 측정되었다. 이에 대한 응답항목은 5점 척도(‘1. 전혀 어렵지 않았다’부터 ‘5. 매우 어려웠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한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취업여부는 더미변수로 취업=1, 미취업=0으로 측정되었다.

3. 분석방법

한국생활적응 척도의 타당도 분석에는 다음과 같이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이 이용되었다. 첫째, 척도 구성요인들의 변별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이 실시되었다. 분석에 고려된 인구사회학적 변수들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경제적 어려움 변수가 통제변인으로 포함되었다. 둘째, 척도의 기준타당도 평가에는 상관분석이 이용되었다. 끝으로 제작된 척도의 차별화된 설명력을 알아보는 증분타당도 평가를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이 실시되었다. 종속변인인 삶의 만족도와 결혼만족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희망감, 문화적응스트레스, 경제적 어려움 변수를 1단계에 투입하고 한국생활적응 변수를 2단계에 투입하여 한국생활적응의 고유한 효과와 추가적인 설명력을 확인하였다.

4. 분석결과

가. 한국생활적응 척도 구성요인들의 변별력

한국생활적응 척도 구성요인들의 변별력을 알아보기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예측대로,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적응 전체척도 점수는 연령, 교육수준, 거주기간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적응 정도는 연령이 낮고($\beta = -.17, p < .01$) 교육수준이 높고($\beta = .14, p < .01$) 국내거주기간이 긴($\beta = .33, p < .001$) 여성들 사이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거주기간의 정적효과는 모든 하위구성 요인들에서도 유의미하게 나타나($\beta s = .13 \sim .41, ps < .05$), 이주국에서의 거주기간이 길수록 이민자의 전반적인 생활적응 정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연령의 유의미한 정적 효과는 가족 및 한국문화 이해, 한국어 이해 및 사용, 한국음식적응 영역들($\beta s = -.20 \sim .21$)에서만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확인되었고, 교육수준의 그러한 효과는 가족 및 한국문화 이해, 지역사회 이용 및 이해, 대인관계 및 사회활동 영역들($\beta s = .12 \sim .30, ps < .05$)에서만 유의미하였다. 이에 비해 통제변인으로 분석에 고려된 경제적 어려움은 한국생활적응 전체 및 하위영역들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결혼이민자들 사이에서 지각

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이 한국생활적응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개발된 한국생활적응 전체척도가 연령, 교육수준, 거주기간에 따른 변별력을 갖고 있는 도구로서 타당도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분석에 고려된 인구사회학적 변수들과 구성요인들 간의 유의미한 관계가 영역별로 일부 차별화되어 척도 구성영역들 간의 변별력도 자료에 의해 지지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표 6.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한국생활적응 척도 전체 및 하위요인들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인구 사회학적 특성	한국생활적응					
	총점	가족 및 한국 문화이해	지역사회 이용 및 이해	한국어 이해 및 사용	대인관계 및 사회활동 참여	한국음식 적응
	Beta	Beta	Beta	Beta	Beta	Beta
연령	-.17**	-.21**	.11+	-.21**	-.11+	-.20**
교육수준	.14**	.12*	.30***	-.03	.14*	.02
거주기간	.33***	.20**	.32***	.41***	.13*	.30***
경제적 어려움	-.01	-.01	.03	.02	-.02	-.07
R ²	.10***	.05**	.30***	.13***	.03*	.07***

+ p<.10, * p<.05, ** p<.01, *** p<.001

나. 기준타당도 분석결과

한국생활적응 척도의 기준타당도 분석결과는 <표 7>과 같다. 예측한 바와 같이 한국 생활적응 점수가 높은 응답자들 사이에서 취업 중인 사람이 많았고($r=.23, p<.001$)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r=.55, p<.001$) 나타나 척도의 동시타당도가 지지되었다. 또한 한국생활적응 점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안녕감을 반영하는 삶의 만족도, 결혼만족도, 그리고 희망감 변인과 예상대로 유의미한 정적상관($r_s=.20\sim.47, p_s<.001$)을 보여 개발된 척도가 예측타당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7. 한국생활적응 점수와 기준타당도 관련 변수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

생활능력 변수		한국생활 안녕관련 변수		
취업유무	한국어 능력	삶의 만족도	결혼만족도	희망감
.23***	.55***	.28***	.20***	.47***

*** p<.001

다. 증분타당도 분석결과

한국생활적응 및 관련 변수들의 삶의 만족도와 결혼만족도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1단계에 투입된 희망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경제적 어려움 변수는 삶의 만족도와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하게 기여하였고 이들에 대해 각각 21%와 19%의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였다. 2단계에 투입된 한국생활적응은 그러한 변수들의 효과를 통제하고도 삶의 만족도와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하게 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_s=.20, .10, ps<.001, .01$ 각각) 삶의 만족도와 결혼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을 각각 3%와 1% 유의미하게 증가시켰다.¹⁰⁾ 이를 통해 한국생활적응 척도가 결혼만족보다 삶의 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이 크다는 것과 개발된 척도가 적절한 증분타당도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8. 한국생활적응 및 관련 변수들의 삶의 만족과 결혼만족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결과

구분		삶의 만족도			결혼만족도		
		B/SE	Beta	ΔR^2	B/SE	Beta	ΔR^2
1단계	희망감	.24/.06	.19***	.21***	.38/.09	.20***	.19***
	문화적응 스트레스	-.24/.03	-.32***		-.24/.08	-.13**	
	경제적 어려움	-.11/.05	-.08*		-.35/.05	-.30***	
2단계	한국생활 적응	.29/.07	.20***	.03***	.22/.11	.10*	.01*
R ²		.23***			.20***		

* $p<.05$, ** $p<.01$, *** $p<.000$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여성결혼이민자가 일상생활을 수행해 나가는 것과 관련한 삶의 여러 영역들을 포함하는 측정도구로서 ‘한국생활적응척도’를 개발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적응은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내 건강한 정착과 행복한 가

10) <표 8>에 제시된 R² 관련 값들은 반올림이 되어 삶의 만족도 R²와 변화량 총계에 차이가 났음.

족생활 영위에 중요한 측면으로서 현재 정부와 지자체 및 다양한 복지기관 등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적응을 도와주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지원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부재로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적응 정도를 파악하거나 지원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적응을 측정하는 도구 개발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척도개발과정은 먼저 여성결혼이민자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한국생활적응과 관련된 영역들을 도출하고 이를 질문하는 지표들과 측정항목들을 개발한 후, 전국 각 시·도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척도구성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이 실시되었고, 관련 변인들과의 상관관계 및 차별화 정도를 알아보는 타당도 분석을 통해 제작된 척도의 타당성이 검토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한국생활적응척도는 총 23개 문항, 5개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요인들의 한국생활적응에 대한 총 설명량은 56.87%, 전체 척도의 신뢰도는 .8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한국생활적응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5개 요인, 즉 1요인 가족 및 한국문화이해, 2요인 지역사회이용 및 이해, 3요인 한국어 이해 및 사용, 4요인 대인관계 및 사회활동 참여, 5요인 한국음식적응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이자 이민자집단인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적응이라는 포괄적 개념이 삶의 다양한 영역들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들로 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본다. 구체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적응이란 첫째,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유지하며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가족문화와 사회적 가치관 등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 둘째, 일상생활 영위에 필요한 지역사회 내 공공시설 및 편의시설을 이용할 줄 알며,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뉴스나 소식들을 아는 것, 셋째, 일상생활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기본적인 수단이 되는 한국어를 익히고, 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넷째, 이웃과 대인관계를 맺고, 지인이나 친구들과 어울리며, 여러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다섯째, 매일의 일상에서 접하게 되는 한국음식에 익숙해지는 것과 같은 다각적 측면의 하위개념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한국생활적응에 대한 개념구성은 그동안 여성결혼이민자와 관련된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구체적으로 개념화되지 못했던 것

으로 본 연구를 통해 이를 측정 가능한 개념구성체로 확인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추후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개념구성이 지속적으로 확인되는지 또는 추가되는 요인이나 개념구성과 관련된 영역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할 필요성이 있다.

개발된 척도가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적응이라는 개념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적절한 개념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타당도분석 결과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연령, 교육 수준 및 한국거주 기간에 따라 한국생활적응 및 하위영역들이 차이를 보이며, 이러한 일반적 특성들이 한국생활적응에 예측과 일관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개발된 도구가 변별력을 지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직업 유무와 한국어 능력, 그리고 적응과 관련된 심리적 안녕감 변인으로 삶의 만족도, 결혼만족도 및 희망감 변인과 한국생활적응 척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두 예측과 일치하는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발된 척도가 동시타당도 및 예측타당도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삶의 만족도와 결혼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한 다중회귀분석결과에서 한국생활적응 척도는 희망감, 문화적응스트레스,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변인이 갖는 설명력을 통제하고도 추가적으로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여 증분타당도의 평가기준을 만족시켰다. 이와 같은 타당도 분석결과는 개발된 척도가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적응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를 예측하거나 설명하는데 타당한 설명력을 지니고 있으며 전반적인 타당도가 양호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여성결혼이민자 ‘한국생활적응 척도’는 여성결혼이민자가 새로운 삶의 터전인 한국의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잘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다양한 활용성이 있을 것으로 평가되며, 척도의 활용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여성결혼이민자를 지원하는 사회복지관련 기관에서 신규 이용자로 여성결혼이민자를 받을 때 이들의 한국생활적응과 관련된 수준을 평가하는 사정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다문화가족 및 여성결혼이민자를 지원하는 기관들은 지역마다 매우 활성화되어 있으며,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생활적응 지원을 목적으로 한 여러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지만, 정작 서비스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시점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현재 적응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없어 실무자와의 면담에만 의존하여 이들을 사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 실정을 반영할 때 본 연

구를 통해 개발된 한국생활적응 척도는 여성결혼이민자를 지원하는 서비스기관에서 이들에 대한 초기 사정도구로서 활용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

둘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사회복지관련 기관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나 프로그램들이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적응에 실제로 도움을 주고 있는지 그 효과성을 평가하는 도구로서도 한국생활적응 척도는 활용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에는 사회 전반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사업과 여성결혼이민자의 적응을 돕는 사회적 지원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척도는 이러한 지원서비스의 이용과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적응이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평가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이민자의 적응과정은 정착국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새로운 문화적 맥락에 맞는 새로운 행동과 기술을 습득할 것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클 경우 개인에 따라 심리·사회적 문제, 정신건강 상의 문제들이 유발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Jayasuriya et al., 1992). 따라서 본 척도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적응과 관련된 최종 지표로서 삶의 질, 정신건강 등의 변인과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적응이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연구해보는데 활용될 수 있으며, 이 밖에도 여성결혼이민자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과학적 연구에서 이들의 한국생활적응을 측정하는 도구로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는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사회과학적 연구를 보다 활성화시키는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척도를 구성하고 있는 가족 및 한국문화이해, 지역사회이용 및 이해, 한국어 이해 및 사용, 대인관계 및 사회활동참여, 그리고 한국음식적응의 5개 하위요인은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적응의 다양한 영역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이러한 영역들에 대한 개별 측정값은 그 영역의 적응을 대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적응이 일상생활의 다양한 측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해볼 수 있는 도구로서 본 척도의 활용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한 사회에 대한 ‘적응’이라는 개념은 몇 가지 영역으로 개념을 한정하기에는 워낙 광범위한 삶의 영역들이 포함되는 특성을 지니므로 본 연구를 통해 추출된 척도의 하위요인들이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적응과 관련된 모든 영역들을 다루는 도구로 활용되기에는 한계점이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를 통해 여성결혼이민자의 적응을 측정하는 다양한 도구들이 개발되어 본 척도와와의 관련성이 연구된다면 본 척도의 타당도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아울러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적응’의 핵심적 개념구성체가 어떤 요인들로 구성되는지에 대한 학문적 논의를 이어가는데 기여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첫째, 연구대상자의 선정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을 이용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로 이루어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비록 본 연구대상자가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도시 및 농촌을 포함하는 전국의 각 시·도로 분포되어있는 것은 장점이 될 수 있으나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를 포함시키지 못한 것은 조사 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제한점이 된다. 둘째, 척도개발을 위한 조사실시에 있어 개발된 척도의 타당도 검토를 위한 별도의 조사연구를 실시하지 못한 점을 연구의 한계점으로 들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한국생활적응의 5개 하위요인에 대한 개념구성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사표본을 활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한 별도의 조사작업을 진행하지 못한 것이 본 연구가 안고 있는 또 하나의 제한점으로 사료된다. 향후 본 척도의 활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척도의 타당화 작업을 위한 별도의 후속 조사연구가 수반되어 척도의 개념구성에 대한 확인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조사대상자의 선정에서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지역사회 내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연구대상자에 포함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비록 이와 같은 연구의 제한점이 있지만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척도는 서울 및 경기지역을 포함하여 전국의 각 시·도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것으로 조사연구를 통해 제시된 척도의 설명력과 신뢰도 및 타당도 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어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생활적응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연구목적에 따라 다양한 세팅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강유진(1999).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의 결혼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2), pp.61-80.
-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2007). 경기도내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수원: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 구차순(2007).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에 관한 근거이론연구.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부산.
- 권복순(2009). 한국어 능력, 자아존중감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61(2), pp.5-32.
- 김민정, 신성만(2010). 도시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역량이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4), pp.711-737.
- 김민정, 유명기, 이해경, 정기선(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딜레마와 선택: 베트남과 필리핀 아내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39(1), pp.159-193.
- 김상업(2004). 상담사례를 통해 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 이주여성인권센터 창립 3주년 심포지엄 자료집, pp.17-48.
- 김영란(2008).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의 사회문화적응에 관한 연구. 담론201, 11(2), pp.103-138.
- 김이선, 김민정, 한건수(2006).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박은미, 이곤수(2009). 다문화사회와 지역사회 적응-여성결혼이민자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1(2), pp.407-429.
- 보건복지부(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 정책방안. 서울: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2009). 다문화가족의 한국생활적응 및 사회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7). 다문화가족 지역 정착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연구.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엄명용, 조성우(2005). 사회복지실천과 척도개발. 서울: 학지사.

- 윤형숙(2004). 국제결혼 배우자의 갈등과 적응. 최협·김성국·정근식·유명기 편.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pp.321-349. 서울: 한울.
- 윤혜미(2009). 결혼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임파워먼트 기반의 사회복지실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1(4). pp.85-108.
- 이금연(2003). 이주여성의 결혼과 가족. *이주노동자운동 정책심포지움 자료집*. pp.101-112.
- 이순묵(2000). 요인분석의 기초. 파주: 교육과학사.
- 이재민, 황선영(2008).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정책*, 33(2), pp.61-84.
- 이혜경(2005).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 *한국인구학*, 28(1), pp.73-106.
- 이혜경(2009).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5(4), pp. 147-166.
- 임석희(2009).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적응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2(4), pp.364-387.
- 정기선, 한지은(2009). 국제결혼이민자의 적응과 정신건강. *한국인구학*, 32(2), pp. 87-114.
- 정진경, 양계민(2004). 문화적응이론의 전개와 현황.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3(1), pp. 101-136.
- 정현숙(1997). 결혼만족도 연구와 척도의 고찰을 통한 새로운 연구방향과 척도의 모색. *대한가정학회지*, 35(1), pp.191-204.
- 조명환, 차경호(1998). *삶의 질에 대한 국가 간 비교*. 서울: 집문당.
- 통계청(2009).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 이훈편. <http://www.kostat.go.kt>에서 인출.
- 한건수(2006).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39(1), pp.195-243.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서울: 보건복지가족 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홍달야기, 채옥희(2006). 사례로 본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정생활실태와 갈등. *한국생활과 학회지*, 15(5), pp.729-741.
- Barry, D. T.(2001). Development of a New Scale for Measuring Acculturation: The East Asian Acculturation Measure(EAAM). *Journal of Immigrant*

Health, 3(4), pp.193-197.

- Berry, J. W.(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1), pp.5-68.
- Cuellar, I., Arnold, B., Maldonado, R.(1995). Acculturation rating scale for Mexican Americans-II: A version of the original ARSMA scale.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17(3), pp.275-304.
- DeVellis, R.(1991). *Scale development :Theory andapplications*. Newbury Park, CA : SAGE Publications, Inc.
- Diener, E., Emmons, R., Larsen, R., Griffin, S.(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pp.71-75.
- Hunsley, J., Meyer, G. J.(2003). The incremental validity of psychological testing and assessment: conceptual, methodological, and statistical issues. *Psychological Assessment*, 15(4), pp.446-455.
- Kaiser, H. F.(1974). An index of factorial simplicity. *Psychometrika*, 39, pp. 31-36.
- Jayasuriya, L., Sang, D., Fielding, A.(1992). *Ethnicity, immigration, and mental illness: A critical review of Australian research*. Canberra: Bureau of Immigration.
- Marin B. V., Otero-Sabogal, R., Perez-Stablel, E. J.(1987). Development of a short acculturation scale for Hispanics. *Hispanic Journal of Behavior Science*, 9, pp.183-205.
- Miller, M. J.(2005). *Asian American acculturation: Testing a bilinear multidimensional measurement model vi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 dissertation of Doctor of Philosophy, Loyola University Chicago.
- Redfiled, R., Linton, R., Herscovits, M. J.(1936). Memorandum on the study of acculturation. *American Anthropologist*, 38, pp.149-152.
- Sandhu, D. S., Asrabadi, B. R.(1994). Development of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s: Preliminary findings. *Psychological Reports*, 75, pp.435-448.

- Schumm, W., Paff-Bergen, L., Hatch, R. et al.(1986). Concurr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of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pp.381-387.
- Searle, W., Ward, C.(1990). The prediction of psychological and sociocultural adjustment during cross-cultural transi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4, pp.449-464.
- Snyder, C., Harris, C., Anderson, J. et al.(1991). The will and the way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dividual differences measure of ho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4), pp.570-585.
- Stephenson, M.(2000).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tephenson Multigroup Acculturation Scale(SMAS). *Psychological Assessment*, 12(1), pp.77-88.
- Suinn-Lew, R. M., Ahuna, C., Khoo, G.(1992). The Suinn-Lew Asian self-identity acculturation scale: Concurrent and factorial validation.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52, pp.1041-1046.
- Unger, J. B., Gallaher, P., Shakib, S., Ritt-Olson, A., Palmer, P. H., Johnson, C. A.(2002). The AHIMSA acculturation scale: A new measure of acculturation for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society.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2(3), pp.225-251.

현경자는 미국 미시간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과 심리학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개인연구소인 우리사회복지연구소에서 연구 및 교육 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사회문화심리와 긍정심리를 이용한 임상사회복지실천지식 개발로 가족, 노인, 다문화사회의 문화적 소수자들을 위한 연구에 관심이 있으며, 현재 여성결혼이민자와 사회적 소수자의 심리적 안녕과 긍정적 태도를 양성할 수 있는 관점다각화의 기능과 역할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swwhyun22@hanmail.net)

김연수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임상사회복지, 정신보건 및 의료사회복지, 다문화, 가족복지이며, 현재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프로그램개발 및 효과성 연구,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경험 및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개발 관련 연구, 그리고 정신건강 관련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E-mail: yskim@bu.ac.kr)

Development of a Korean Life Adaptation Measure for Female Marriage Immigrants

Hyun, Kyoung Ja

(Center for Woori Social Work Research)

Kim, Yoen Soo

(Baekseo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Korean life adaptation measure for female marriage immigra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To construct scale items, critical issues and difficulties associated with the adaptation to Korean life among female marriage immigrants were identified and categorized through literature review. As a result, 26 scale items were constructed, and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easure for the adaptation to Korean life was attempted, using data drawn from a questionnaire survey in which 558 female marriage immigrants participated. Results of exploratory factor analyses revealed 5 factors: factor 1 ‘understanding of family & Korean culture’; factor 2 ‘understanding & utilization of local community’; factor 3 ‘understanding & utilization of the Korean language’; factor 4 ‘interpersonal relation and social activities’; and factor 5 ‘adaptation to Korean foods.’ The final 5 factor scale consisted of a total of 23 items, and these factors accounted for 56.87% of variance. This scale was found to be reliable in terms of internal consistency, as suggested by Cronbach’s alpha .89. In terms of validity, the scale showed a proper discriminant power, criterion and incremental validity.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cale’s applicability in multicultural family studies was discussed.

Keywords: Female Marriage Immigrant, Korean Life Adaptation, Korean Life Adaptation Scale, Scale Development